

## 실전을 상정한 성하마을

### 쇼지(障子) 해자

이곳 마쓰에시 도로 기타타오하시선 교차로에는 「후나이리 강」이라고 불리는 해자가 오테마에 거리와 직행하는 듯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해자를 조사해 봤더니, 성하마을 조성 당시의 해자 바닥에서 깊이 파여진 큰 구멍이 몇 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쇼지해자」라고 불리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깊은 곳과 얇은 곳을 만들어서, 해자를 건너오는 적의 기세를 꺾는 방어기술의 하나입니다. 동일본에서는 이러한 것이 많이 발견되지만, 서일본에서는 몇 군데 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마쓰에 성하마을은 갈고리 모양의 길이라던가 사람들의 기세를 꺾는 장소를 마련하는 등, 실전을 상정한 군사적인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지만, 해자 바닥에 대해서도 외부의 적에 대한 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성하마을이 만들어진 것은 1607~1611 년 경으로, 이 무렵에는 세키가하라 전투 후에도 오사카에 도요토미가가 존재한 긴박한 시기였습니다.